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을 위한 지원주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지원주택의 구성요소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김성경* · 정민아** · 김희성*** · 이경혜****

초 록

본 연구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주거공간과 자립지원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한국적 적용을 고려하여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주택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면접을 실시하고 주제분석과 내용분석의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주택의 구성요소로 3개의 주제 범주와 10개의 하위내용 범주를 분류하였다. 지원주택의 구성요소는 첫째, 입주 당사자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과 관련된 것으로, 지원주택에 입주하는 동안 자립을 위한 ‘출발 준비’를 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지닌 청소년이다. 둘째, 주거 공간과 관련된 주제로 청소년이 ‘살고 싶은 집’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주거 조건을 갖춘 공간이어야 한다. 셋째, 지원주택의 서비스와 관련된 것으로,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자립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실천적 대안으로 지원주택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현장 실무자의 경험과 인식을 토대로 하여 우리 사회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을 위한 지원주택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청소년, 주거공간, 지원서비스의 주제 영역 및 구체적 내용을 도출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향후 실천현장에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주택을 설계하고 실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퇴소청소년 자립, 지원주택

*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저자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교신저자, lucy9683@naver.com

*** 명지전문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

I. 서 론

청소년은 성인기로의 전환과정에서 원가정을 떠나 독립된 성인으로 자신을 ‘사회에 내보냄(launching)’을 경험한다(Jezek, 1997). 이러한 청소년의 자립은 단순히 한 단계 높은 생애 단계로의 이전이 아니라, 보호와 통제의 대상이 되는 비독립적인(dependent) 존재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 독립적인(independent) 성인으로서의 나를 새롭게 ‘론칭’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자라고 독립하는 청소년의 경우 가족체계와의 상호작용 가운데 새로운 주거공간과 사회적 관계에 진입하며 자연스럽게 자립하게 된다. 이와 달리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청소년은 단체생활을 경험하다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강제적으로 법과 제도가 규정 한 자립 과정에 따라 사회에 진입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을 포함하여 가정위탁보호 및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지원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다(김성경, 김희성, 원지영, 2014).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중앙과 지역의 자립지원사업을 관리하며, 아동자립지원단, 자립지원전담기관(아동복지법제40조),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수행된다. 또한 2011년부터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Ready? Action!)’을 도입하여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의 자립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립에 필요한 주거와 관련하여, 전국 12개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과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대학생 전세임대, 영구임대주택 지원 및 공동생활가정 입주 지원 등을 통해 자립정착을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 2015년부터는 민간 기부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한국아동복지협회 주관으로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이 실시되어, 자립체험, 독립적 주거공간 및 사례관리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민간차원의 지원도 시행되고 있다(김희성, 전구훈, 김성호, 정민아, 2016).

그러나 이러한 자립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제적인 주거 현황은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퇴소청소년 가운데 주거 관련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는 30% 정도이고, 나머지 과반수 이상은 청소년 개인이 전적으로 자립 이후의 주거를 책임지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 2016b). 이러한 상황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이 월세 주택 등 비용부담이 높은 주거를 선택할 경우, 주거비 부담

등으로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예측하게 한다. 실제로 2016년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시설의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퇴소 이후의 기간이 경과할수록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 2016b). 또한 아동복지시설 퇴소기간이 길어질수록 주거불안정이 높아, 퇴소 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욕구로 나타나고 있다(김성경 외, 2014). 이러한 주거·빈곤문제 외에도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 종결 이후 퇴소청소년의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 2016b). 이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들은 성인이 되는 발달적인 전환과정에서 자립이라는 환경 변화와 정서적·도구적 자원의 결핍을 동시에 경험하기 때문에 또 다른 유형의 고위험 청소년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신혜령 외, 2008).

이렇듯,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이 맞닥뜨리는 자립현실은 주거환경의 열악함과 발달전환기의 심리적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퇴소청소년의 자립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립현실에 맞춰, 성인기로 전환하는 퇴소청소년이 최소한의 보호 속에서 성장과 자기 충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의 제공과 각종 지원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주거와 지원의 통합적 접근으로서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이라는 주택과 서비스가 조합된 지원체계가 실행되고 있다.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이란 ‘집 없음(homelessness)’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취약한 개인과 가족에게 건강, 회복, 개인적 성장을 위해 안정된 주거공간과 사회복지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주거서비스로 정의된다(CSH, 2013). 지원주택의 이용 대상은 공통적으로 ‘집 없음(homelessness)’의 문제를 갖고 있으며, 단지 주거만 제공했을 경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보호 대상자이다. 따라서 지원주택은 입주대상인 취약계층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지원서비스와 주거를 함께 제공해야 자립생활이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다(서종균, 2013). 이러한 지원주택은 노인, 저소득층, 노숙인, 무직 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평가된다(최경옥, 이연숙, 강혜연, 2014; Clapham, 2015).

우리나라도 최근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과 같이 일부 사회복지 분야에서 현장경험을 통해 주거와 서비스의 결합에 대한 강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나, 퇴소

청소년의 자립에 대해 주거와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활발하지 못하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이 자립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립지원시설의 경우 주거형태나 생활방식이 여전히 시설의 테두리 안에서 머물러 있어, 진정한 의미의 자립과는 거리가 있으며, 자립지원시설 이용연령이 지난 청소년은 또다시 일반 사회로의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임대주택 및 전세자금 지원을 이용하는 퇴소청소년의 경우 주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나, 일반 가정에서 자립하는 청소년들과는 달리, 자립생활 정착을 위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자립에 대한 개인부담이 높은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자립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거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와 연결시키며 교육 및 훈련기회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Beyond Shelter, 2009: 4), 자립을 위한 지원주택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에서도 향후 보호 종료 청소년의 조기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자립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주택도 그 대안으로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원주택은 해당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이용자에게 어떤 내용의 서비스를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할 것인가가 그 핵심이다(남기철, 2012; Clapham, 2015). 지원주택의 특징과 구성요소는 복지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그들의 욕구에 따라, 그리고 자립의 목표와 해당 국가의 정책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대안으로 자립을 위한 지원주택의 한국적 적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원주택의 특징과 구성요소에 대해 아동복지현장 자립 실무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한국적 지원주택의 적용 대상이 될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더불어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하고 있는 국외 지원주택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지원주택의 구성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지원을 담당하는 현장실무자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 면접을 실시하여 퇴소청소년 자립을 위한 지원주택의 구성요소와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포커스 그룹 면접의 연구방법은 실무자의 경험과 인식을 자세히 듣고 의미를 찾아내기에 적절하며 탐색되지 않은 잘 모르는 주제 및 대상을 이해하는데 이용되는 장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현장 실무자의 인식과 요구를 탐색하여 실질적으로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주택 제공에 있어 실증적인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통해 향후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주택을 설치하여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립지원체계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현실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은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라 법적 퇴소 연령인 18세가 되어서 혹은 그리고 퇴소연장 보호를 받고 18세 이후에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이라고 정의된다. 그리고 자립이란 성공적인 상호의존의 성취로 자신의 ‘독립적 상태’를 이끄는 것이라 정의된다. 즉, 자립은 자신에게 편안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 속의 의미 있는 사람들과 즐겁게 연계를 가지는 자기 충족적(self-sufficient)이고 독립적인 생활(independent living)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Maluccio et al., 1990; 신혜령, 김성경, 안혜영, 2003에서 재인용).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은 아동양육시설 또는 위탁가정, 그룹홈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이들 청소년에게 자립은 아동복지시설 입소 당시 경험한 부모와의 분리 경험에 더해, 그동안 본인의 심리적, 공간적 지지체계였던 아동복지시설과 ‘또 한 번의 분리를 경험’(윤명숙, 박신애, 2014)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은 ‘사회로 내던져진’(권지성, 정선옥, 2009: 239) 퇴소경험을 겪으면서 ‘타인에 의한 홀로서기’로 인식되면서 밥을 지어먹고, 건강을 챙겨야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일상의 하나하나가 ‘고군분투’(권지성, 정선옥, 2009)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아동복지시설로부터의 분리경험은 청소년의 준비정도나 자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이 정한 자립 연령과 조건, 즉 타의에 의한 것으로 청소년이 자립의 주체이지만 이들의 주도성이 결여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은 여러 자립생활 경로를 통해 성인기로 도달하는데,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많은 청소년들이 자립계획 부재, 가족지원 부족, 주거문제, 실업 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경로(chaotic pathway)’를 거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김명성, 2013; 박상현, 2013; 장혜림, 이정애, 강지연, 정익중, 2017; Ford, Rugg & Burrow, 2002; Mayok, Corr & O’Sullivan, 2008; Steen & MacKenzie, 2017에서 재인용). 특히 퇴소청소년은 자립과정을 거치며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다분히 이중성을 경험한다. 오랜 기간 생활해온 아동복지시설로부터 독립하면서 퇴소청소년들은 공동체 내에서의 단체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개인 생활을 통해 ‘자립의 기쁨’(유영립, 양영미, 박미현, 2015: 532)을 누린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야 하는 외로움을 느끼며, 챙겨주는 사람도 없이 홀로 지내야 한다. 부모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퇴소 후 관계를 다시 이어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원한 관계로 있게 되며(권지성, 정선옥, 2009; 유영립 외, 2015), 자립 전까지 원가족을 대신하여 가족을 대신해 왔던 시설에서의 양육자 및 선·후배들과의 관계(김수정, 김지선, 정익중, 2017)도 물리적 거리가 생기고 접촉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원해지고 서먹해 짐을 느끼게 된다(권지성, 정선옥, 2009). 또한 자립이전부터 경험한 아동복지시설 출신이라는 낙인과 차별경험은 여전히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권지성, 2007). 이러한 퇴소청소년이 지지체계와의 단절 경험 또는 지지체계의 부족은 자립생활에 대해 의지할 사람 또는 물어볼 수 있는 사람 하나 없는 ‘막막함’(권지성, 정선옥, 2009; 박상현, 2013)을 경험케 하며 자립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자립한 퇴소청소년이 맞닥뜨리는 경제적 부담은 독립에 따른 기쁨을 상쇄시키는 현실적 문제로 이들의 자립에 ‘버거운 짐’을 지운다(권지성, 정선옥, 2009: 240).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미 이들의 자립에 대한 국내외 여러 연구들에서 언급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2011; 정익중, 장혜림, 이정애, 강지연, 2015; Dworsky & Courtney, 2009).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들은 자립정착지원금과 디딤씨앗통장,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장학금, 전세주택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정익중 외, 2015). 그러나 자립청소년의 경험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금은 퇴소청소년이 자립에 필요한 주거를 마련하고 일부 생활비 정도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퇴소청소년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해도 돈을 모

으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는데 재정관리능력이 부족할 경우 이러한 어려움은 가중된다(권지성, 2007; 권지성, 정선옥, 2009; 유영림 외, 2015).

퇴소청소년의 자립현실에서 심리적, 경제적 부담 외에 보호종료 이후의 주거불안정은 이들이 경험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퇴소청소년 가운데 보호종료 이후에 월1회 또는 1년에 1~3회 이사를 경험한 경우가 보호종료 아동 전체의 32.6%를 차지하며, 월세, 고시원, 쪽방 등의 불안정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40%에 달한다(정선옥, 2010). 또한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퇴소청소년 가운데 63%는 주거와 관련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불안의 위험이 더욱 높다. 또한 정부지원 외 주거형태에서 생활하는 경우 월세와 기숙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보호종료 기간이 오래된 아동일수록 월세의 비율이 높아, 퇴소청소년의 주거문제는 보호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자립을 저해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 2016a).

2.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주택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이란 ‘집 없음(homelessness)’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취약한 개인과 가족에게 건강, 회복, 개인적 성장을 위해 안정된 주거공간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CSH, 2013)하는 주거·지원서비스이다. 지원주택은 아동, 여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에게 제공되며, 이를 통해 이들이 ‘집 없음(homelessness)’의 상황에 처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이를 종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남기철, 2012). 특히 지원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주거만 제공했을 경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보호 대상자들이므로 그들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주거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독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서종균, 2013). 따라서 지원주택은 아동, 여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해 지역사회 주거생활을 유지시키는 안전망 프로그램으로 작동한다.

미국의 The Corporation for Supportive Housing(CSH, 2013)이 지원주택의 특징으로 강조한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입주자 중심(tenant-centered)으로 주택의 입주자들이 독립성이 보장되는 주거공간을 지원받으며 지원주택 실무자의 파트너가 되어 사

업계획 및 실행에 참여해야 한다. 지원주택은 입주자의 욕구에 맞게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위치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지원주택의 임대료는 입주자 개인소득의 30% 미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소득의 50% 이상을 넘지 않는 높은 가격 접근성(accessible)을 가져야 한다. 협업(coordinated)을 기반으로 하여 지원주택 실무자와 입주자들은 운영하는 데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문서화하며, 소통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통합성(integrated)을 기반으로 하여 지원주택의 서비스제공과 주택관리의 통합성을 유지하여 주택 제공·관리 주체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동일해야 하고 지역사회 표준에 적합해야 하며, 지역사회 서비스와도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Hannigan과 Wagner(2003)는 미국의 청소년 지원주택의 핵심 요소로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영구성, 임대료 부담의 최소화(입주자 소득의 30% 수준), 최저 주거수준 이상의 안정성과 쾌적성, 개별적이며 유연성 있는 사례관리와 지원서비스, 역량강화와 독립성이라고 제시하였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주택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2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 호주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청년 포이어(Youth Foyer)모델이 있다. 청년 포이어 모델은 위탁가정과 같은 보호체계를 떠나 안정적 주거가 확보되지 않은 16세(또는 18세)부터 25세 연령의 집 없는 청년(homeless youth)을 대상으로 이들이 독립적인 성인으로 전환하도록 생활할 수 있는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직업 탐색 및 훈련, 개인적 지원과 동기부여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영국에서 포이어 모델은 교육 및 훈련과 취업이 가능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장(on-site) 서비스와 함께 질 높은 독립주거 형태의 숙박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취약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생활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첼시 포이어(Chelsea Foyers)는 위탁보호에서 퇴소하거나 노숙 경험이 있거나 노숙의 위험이 있는 18세부터 25세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주택이다. 입주 청소년들은 최소한 파트타임 직업을 가져야 하며, 본인의 자립생활에 책임감을 갖도록 그들의 개인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임차료를 지불한다(김성경 외, 2014). 청년 포이어 모델과 같이 사회취약계층, 특히 주거상황이 열악한 대상자에게 안정적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주택을 제공하고 이 주택에 거주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지원주거(Supportive Housing)(남기철, 2011) 방식은 해당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이용자에게

어떤 내용의 서비스를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할 것인가가 그 핵심이 된다(남기철, 2012; Clapham, 2015). Dworsky(2010)는 성인기로 이행하는 집 없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주거 기반 자립생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첼시 포이어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미국 첼시 포이어 모델

구분	특성
초점집단	18세부터 25세까지의 위탁보호종결 또는 집 없는 청소년
주거 특징	주거용 건물 내의 스튜디오나 원룸 형태의 아파트
사례관리와 목표설정	청소년과 지역사회원이 연계된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개인화된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하도록 도움.
일상생활훈련	입주자는 반드시 현장 생활 기술 훈련 워크샵에 참가해야 함.
기타 프로그램 요구조건	입주자는 최소한 파트타임으로 일해야 함. 기본 생활기술과 주거생활 안전기술을 발달시키고 생활독립성을 준비하도록 기획된 워크샵에 참여해야 함.
주거비용	저축되는 프로그램 비용으로 각자 수입의 약 30%를 지불함
거주기간	최대 24개월
사후보호	포이어 이후에도 적절한 지역사회 자원에 연결되도록 포이어에서 생활했던 청소년들에게 사후보호를 실시함.

출처: Dworsky, A. (2010). p.18.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은 주거지원 위주로, 전국의 12개 자립지원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하거나, LH를 통한 임대주택 및 전세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자립지원시설은 입소대상이나 출신지역 등의 제한이 있으며 매년 발생하는 퇴소청소년의 수에 비하여 시설의 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LH 전세주택지원의 경우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연령이 만23세로 학업 등의 사유로 시설에서 연장보호를 받고 퇴소하는 청소년의 경우 신청시한을 놓치게 되는 등의 한계가 많다(아름다운재단, 아동자립지원단, 2017). 특히 이러한 주거지원은 주거 확보에 필요한 지원에만 머물러 있고 서비스 지원이 없거나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김성경 외, 2014). 즉, LH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 및 전세주택, 그리고 자립지원시설은

서비스 요소가 부족하므로 지원주택으로 유형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지원주택은 주택 제공 주체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동일해야 하고 지역사회 서비스와도 연계되도록 하는 통합성을 갖춰야 하므로 그 요소에서 미흡함을 갖고 있다.

특히 퇴소청소년에게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공간과 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체계가 우리나라는 전무하다보니, 이에 따른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청소년 쉼터의 유형별 사례관리 모델을 제시한 김성경(2007)의 연구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상황에 기반 한 사례관리 모델의 유용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의 낮은 자립 성취도에 대한 대응책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더불어 자립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지적 사회관계망의 형성을 돕는 통합적 지원과 제공주체가 통합적이어야 함을 제시한다. 또한 퇴소청소년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욕구나 문제를 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요문제와 잠재된 욕구를 파악하고, 청소년의 강점과 자원을 중심으로 긍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성경, 2007; 안혜영, 윤명숙, 권자영, 김용득, 강혜규, 2011). 따라서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들이 자립으로의 이전 경로를 통해 자립생활에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양질의 주거공간과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일상생활기술 훈련과 같은 주거생활에 대한 교육과 지원, 재정관리에 대한 도움, 심리정서지원, 취업 및 진로 지원(김희성 외, 2016) 등 자립 시기에 적합한 지원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주택의 도입이 요구되며, 이러한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주택이 성공적으로 우리나라 복지환경에 안착하기 위해서 그 구성요소를 먼저 탐색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주택을 도입하기에 앞서 지원주택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현장에서 자립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

를 면접을 실시하여 이들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포커스 그룹 면접은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참여자들의 의견과 경험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김성재, 김후자, 이경자, 이선옥, 2000). 또한 포커스 그룹 면접은 참여자 스스로 자신과는 다른 관점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고, 제시된 문제에 대한 경험과 생각들을 자유롭게 발언하고 토론함으로써 스스로의 경험을 다른 시각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소그룹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참여자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2014년 7월 8일부터 2014년 7월 15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서울 및 경기도 내 그룹홈 및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혹은 시설장 가운데 스노우볼 샘플링 방식으로 확보된 총 11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저자 중 두 명이 주요 진행자와 보조진행자가 되어 포커스 그룹 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시작 전, 해당 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¹⁾를 받았으며, 연구 참여자들과 미리 연구의 취지와 참여 의사를 확인했고, 연구 목적과 면접의 진행 및 녹취과정, 자료의 이용, 연구윤리에 대해 설명한 후 문서화된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 참여자는 포커스 그룹 면접 과정에서 기대하는 참여자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아동복지시설 자립관련 다양한 기관의 다양한 직급, 자립관련 업무 경험 등을 파악하여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정보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직 급
연구 참여자 1	여	62	그룹홈 원장
연구 참여자 2	여	56	그룹홈 원장
연구 참여자 3	여	38	그룹홈 팀장
연구 참여자 4	남	48	그룹홈 국장
연구 참여자 5	여	33	아동양육시설 자립전담요원

1) 연구계획서 단계에서 해당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음(IRB심의번호: KBUIRB-201407-SB-009-01).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직 급
연구 참여자 6	남	46	아동양육시설 사무국장
연구 참여자 7	여	34	아동양육시설 자립전담요원
연구 참여자 8	여	33	아동양육시설 자립전담요원
연구 참여자 9	여	54	아동양육시설 사무국장
연구 참여자 10	여	45	아동양육시설 사무국장
연구 참여자 11	여	40	아동양육시설 자립전담요원

2.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포커스 그룹 면접조사의 목적대로 한 가지 경험에 대해 서로 다른 개인의 경험이 같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경험의 본질을 찾는 것이다(Van Kaam, 1969; 김성경 외, 2014에서 재인용). 이를 위해 포커스 그룹 면접 질문은 개방형 질문(open-ending question) 방식으로 제시되었으며, 참가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했다. 포커스 그룹 면접의 주제 및 질문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포커스 그룹 면접의 주제 및 질문내용

주제	질문내용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주택	■ 퇴소청소년에게 주거와 서비스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지원주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주택에서 입주 대상자의 자격으로 고려(또는 요구)해야 할 퇴소청소년의 특성 또는 상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지원주택에 입주한 퇴소청소년들의 미래 자립을 위해 입주기간동안 습득해야할 태도, 자질, 역량 등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지원주택에서 퇴소청소년들에 제공하는 주거공간의 구성 및 수준은 어떠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원주택에 입주한 퇴소청소년의 자립생활을 위해 주거와 함께 어떤 지원서비스가 필요할까요? ■ 지원주택에서 퇴소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주거생활과 지원서비스는 어떤 형태/방식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포커스 그룹 면접과정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자립 업무 실무자라는 공통점과 시설 유형, 직급 및 경력의 차이에 따른 다양성에 기초하여 지원주택의 구성요소에 대한 여러 의견이 개진되었다. 면접 참여자들은 개인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퇴소청소년의 자립현실에 대해 서로 간에 유사한 인식을 공유하였으며, 자립지원 현장경험을 토대로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와 지원에 대한 공통된 관점과 의견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포커스 그룹 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과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을 실시하는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해 퇴소청소년 자립을 위한 지원주택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면접 과정을 통해 실무자의 자립지원 경험에서 공유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주택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구성요소가 되는 상위 주제범주와 하위 내용범주의 단위를 도출하였다. 또한 결과 분석과정에서 연구자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불일치를 줄이고 수정·보완함으로써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포커스 그룹 면접의 영역과 질문, 분석내용을 최종 정리하였다. 다각적 검증을 위해 외부 사회복지과 교수 1인, 박사 2인의 타당도 검증과정을 통해 주요 내용 및 범주간의 일치성을 확인하고, 연구 참여자 2인에게 도출된 결과가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토의 과정의 내용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과정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IV. 연구결과

포커스 그룹 면접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주택에 대한 현장실무자의 전반적인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주택의 구성요소로 입주당사자인 퇴소청소년과 관련된 요소, 청소년이 살아가는 주거공간과 관련된 요소, 그리고 자립에 필요한 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요소의 총 3개 주제범주와 이와 관련된 총 10개의 하위내용범주가 확인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입주 청소년: 자립을 위한 ‘출발 준비’

연구 결과, 지원주택을 제공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대상요소, 즉 어떤 입주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가이다. 입주 대상자와 관련하여 영국 포이어 모델은 위탁가정, 그룹홈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 중에서 교육 및 훈련과 취업이 가능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미국 첼시 포이어(Chelsea Foyers)에서는 최소한 파트타임 이상의 직업을 가진 청소년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이들이 책임감을 갖도록 프로그램 참여비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김성경 외, 2014). 포커스 그룹 면접에서는 지원주택 입주 대상자와 관련하여 퇴소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게 논의되었는데, 이는 실무자의 경험상 자립 당사자의 자립의지나 마음가짐 등이 퇴소청소년 자립을 위해 기본이 되는 전제조건으로 인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퇴소청소년 자립을 위한 지원주택의 첫 번째 구성요소로서 지원주택의 입주자 차원에서 자립을 위한 ‘출발 준비’를 주제범주로 도출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독립 주거에 대한 책임감, 자립의지, 경제적 자립의 준비라는 하위범주를 분석하였다.

1) 독립 주거에 대한 책임감

연구참여자들은 지원주택 입주 청소년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립 주거에 따른 책임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실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아온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공간을 가져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율성을 갖고 자신의 공간을 관리하는 책임감은 부족할 수 밖에 없지만, 입주 청소년이 공간 관리 책임과 더불어 최소한의 비용(관리비)을 지불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는 포이어 모델에서 개인이 실비 수준으로 주거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김성경 외, 2014) 입주자가 주거생활의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과 유사한 의견이었다.

“전세주택을 얻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변기와 문이 망가져서 그 집에서 나올 때 수리비로 800만원을 물어줬어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주거 공간에 대해 책임있는 청소년을 입주시켜야 돼요.” 〈⑤〉

“(관리비를) 실비로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좀 책임의식이 생기고...” <Ⅱ>

2) 자립의지

연구 참여자들은 ‘위태로운 홀로서기’라고 명명한 김명성(2013)의 연구 결과처럼 어떠한 제도나 지원이 훌륭해도 언제까지나 지원을 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퇴소청소년이 자립생활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립의지로, 현장실무자들은 지원주택에 입주하는 퇴소청소년이 자립의지를 갖게 될 경우 더욱 효과적으로 자립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지원주택에서는 퇴소청소년의 자립의지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자립의지가 있는 청소년을 입주시켜야함을 강조하였다.

“아무것도 안 내니까... 그렇다고 여유 있는 돈을 저금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배짱이로 만드는... 생각이 있는 아이들은 자기들이 하겠지만 대부분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끝까지 계속 지원만 바랄 뿐이지... 그래서 새로운 자립주택에서는 자립의지가 입주조건이어야 해요.” <Ⅱ>

“(중략) 임대아파트가 되어서 500에서 247만원인가 보증금 내고, 나머지로 기초적인 가전제품을 사주니까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열심히 일을 찾아 몸도 튼튼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걸 보니까...” <Ⅰ>

3) 경제적 자립 가능성

연구 참여자들은 지원주택 입주 청소년들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마련하도록 최소한 파트타임 이상의 직업을 가져야 하며, 경제적 자립의 준비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적절하다고 강조하였다. 경제적 자립의 가능성은 청년 포이어 모델에서도 입주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경제적으로 완전한 자립이 어렵더라도 지원주택에서의 지원서비스를 통해 향후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도를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성경 외, 2014).

“주거지원을 받으려면 알바라도 해야 해요. 관리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 주거지원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요.” 〈①〉

“우리 시설 아이 중에 간호대를 보내서 졸업 후 취업을 했어요. 근데 시설에서 못내보내겠더라고요. 갈 데가 없잖아요. (중략) 이런 아이들이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동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②〉

2. 주거 공간: ‘내가 살고 싶은 집’

미국 CSH(2013)에서는 지원주택의 주거요소로 입주자 중심 주거, 접근성이 높은 주거 등을 강조한다. 특히 주거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집이 아니라 입주 당사자의 ‘집(home)’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반영된 공간이다. 연구 분석을 통해 지원주택의 두 번째 구성요소로 이러한 주거 공간과 관련된 요소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퇴소청소년이 ‘살고 싶은 집’이라는 주제로 범주화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퇴소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집이면서 사생활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곳이고 시설이 아닌 주거, 지지체계가 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하위범주를 분석하였다.

1)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집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하기에 퇴소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주거 조건은 저렴한 가격의 월세, 자유가 있는 멋진 원룸으로 귀결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집단생활 속에서 통제를 받던 청소년들에게 퇴소는 자유로 인식되며 잘 꾸며진 원룸을 꿈꾸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퇴소청소년이 살고 싶은 공간인 ‘집’은 저렴한 가격에 자유가 있는 멋진 집에 대한 욕구를 현실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원룸을 한 번씩 보여줬어요. 니네 정말 열심히 하고 잘 지내면, 여기서 살게 해줄게. 여기서는 이렇게 생활하고 언니들은 이렇게 살아. 너희들이 알아서 직장 잘 다녀서 살면 돼. 이러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일단 집이 너무 좋거든요. 자기가 생각한 풀옵션 원룸이라 다 갖춰져 있고..” 〈⑧〉

“아이들은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예쁘게 꾸며진 원룸에 풀옵션, 그런거를 상상을 해요. 그래서 돈이 없는데도 50~60주고 월세를 산다니깐요? 처음에는... 해보고 싶어서” 〈⑧〉

“자기가 적은 월세를 내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해주면 아이들한테 훨씬 도움이 되고, 자기가 또 독립하는데도 좀 빨리 적응하고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⑦〉

2) 사생활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곳

연구참여자들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을 위한 주거공간에 대해 사생활 보장과 자율성 보장이 우선적이며, 통제가 최소화되는 주거유형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던 청소년들은 퇴소를 앞둔 시점에서는 단체생활과 규율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다분히 이중성을 경험한다(유영림 외, 2015). 현장실무자들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이제 성인이 되어 자립하는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에 대한 이해가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공간에도 반영해야함을 강조하였다.

“현재 자립그룹홈도 만족해하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도 역시 누군가가 통제가 들어가잖아요. 통제가 최소화되어야 해요.” 〈②〉

“아이들에게 개인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해요. 솔직히 자고 있는데 선생님이 벌컥 들어오면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⑧〉

“같이 살더라도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마련되는 그런 거를 좀 해주면 아이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자기가 또 독립하는 데도 좀 빨리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⑦〉

3) ‘시설’이 아닌 곳

연구 참여자들은 퇴소청소년들이 ‘시설아동’에서 벗어나고 싶어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주택이 아동복지시설의 연장선이 되거나 자립그룹홈의 형태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반 가정과 같이 적은 인원으로 구성된, 입주자가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선택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있는 주거형태가 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자립그룹홈을 우리 집(시설) 옆에다 얻어줬어요. 다음 날 그러더라고요. 세탁소 가서 우리 얘기를 했냐고. 그래서 응. 왜? 그랬더니 ‘아니 그 집에서 벗어나 내 개인의 이름을 쓰기 위해서 이제 나왔는데 왜 또 그 시설이름으로 하냐고’ 나에게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②>

“애들이 생각하는 것은 30~40명의 자립관이 아니라 10명이든 몇 명이든 소규모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주거의 형태였으면 좋겠다는 거고..” <⑥>

4) 지지체계가 될 수 있는 공간

연구 참여자들은 지원주택이 퇴소청소년의 자립과정에서 하나의 지지체계가 될 수 있는 공간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이 자립 이후 물리적, 심리적으로 그간의 대인 네트워크 및 지지체계와의 단절을 경험(권지성, 정선옥, 2009; 유영림 외, 2015; 김수정 외, 2017)하는 것과 관련된다. 따라서 지원주택이 자립생활을 하는 다른 입주 청소년, 서비스 제공자 또는 외부 자원을 통해 심리적 지지체계로 기능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나가서 살아도 자기 집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들어와서 의논할 수 있는 누군가의 어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새로운 주거는 그런 어른이 있는 지지체계로 작동되어야 해요.” <⑩>

“직장인 멘토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직장생활에 필요한 것도 알려주고, 직접 이력서 쓰고, 면접볼 때 면접관도 되어준 멘토프로그램이 도움되었다고 해요.(중략) 새로운 주거는 그런 지속적 멘토로 운영되어야 해요.” <③>

3. 서비스: ‘도움’이 되는 지원

본 연구에서는 지원주택의 세 번째 구성요소를 ‘도움’이 되는 지원서비스로 주제별 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자립을 위한 출발준비가 되어있고, 주거공간이 마련되었다면, 자립 성공의 마지막은 자립생활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다. ‘집’은 외부에서 지원된다 하더라도 자립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퇴소청소년 혼자 감당해야하는 몫이므로,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첼시 포이어를 비롯한 해외의 사례와 김성경(2014)의 연구에서 퇴소청소년이 자립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원주택은 단지 주택제공뿐만 아니라 사례관리를 포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본 연구 참여자들도 주택과 함께 제공되어야 하는 ‘도움’되는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의 구성요소로는 일상생활 기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미래의 완전한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금전관리, 자존감을 바탕으로 자립에 성공 그리고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이 하위범주로 분석되었다.

1)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자립과정: 일상생활 기술 지원

연구참여자들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는 식사준비부터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자립과정이므로, 입주청소년을 위해 일상생활 기술의 지원이 지원주택에서 중요한 서비스 내용임을 제시하였다. 미국 오리건 주의 Juvenile Right Project에서도 청소, 요리, 돈 관리 등 주거와 관련된 일상 기술 들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미국 미네소타 주정부 프로그램 또한 청소년이 갖춰야 할 주거 관련 기술로 집 관리하기와 음식물 관리하기의 각 주제별 세부항목을 제시하고 있다(김희성 외, 2016). 퇴소 청소년에게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식사준비, 청소, 빨래, 음식물관리까지 일상생활에 대한 유지관리가 매우 낮설 수 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에서는 자립의 과정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기본적인 조리도구 사용법을 전혀 몰라요. 밥솥도 ‘새 제품이니까 비닐 같은 걸 다 뜯고 취사 누르면 밥이 되는 거야’ 라고 한번 말해줬는데도 그 비닐 마지막에 붙은 거를 안 떼고 밥을 하려해서 불 날 뻔도 하고.. 그런 거 다 알려줘야 해요.”(⑧)

“처음에는 아이들이 빨래하는 방법조차도 모르잖아요. 뭐 색깔 있는 거 없는 거 같이 한꺼번에 돌려서 물이 든다든지, 아니면 드라이세탁 하는 걸 그냥 세탁기에 돌려서 못쓰게 된다는 지... 집 보는 방법, 집을 구할 때 뭐를 챙겨가야 하나 그것도 다 알려주어야 해요.”〈⑦〉

2) 미래의 완전한 자립을 위한 금전관리

연구참여자들은 지원주택에서 퇴소청소년을 위한 효율적인 금전관리와 자산관리의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미국 미네소타 주의 복지국 산하 이동보호 및 자립지원 부는 보호아동의 자립을 위한 돈 관리 교육내용을 신용보고, 장기재정설계, 잔금유지, 신용카드나 대출의 용어 및 장단점, 월급명세서의 세부내용 이해, 부가가치세 계산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김희성 외, 2016)하고 있는데, 연구분석에서도 퇴소청소년을 위한 효율적인 금전관리와 자산형성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시설아동들은 경제관련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지만 이와 같은 교육은 단발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퇴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①〉

“(퇴소 후) 차라리 0이 되서 돌아오면 밑바닥에서 시작하면 되는데, 마이너스가 돼서 사채 끌어다 쓰고, 이러면 곤란하죠. 그럼 이제 파산하고, 개인회생 신청해야 하고...”〈⑫〉

“지방에서는 선생님들이 똑똑한 애는 대학을 보내고 공부는 안했어도 성실한 애는 대기업 공장에 보내는 것으로 하신다면서요. 돈을 모아서 최대한 통장을 끝까지 갖고 있도록 도와주어야 해요.”〈⑨〉

3) 자존감을 바탕으로 자립에 성공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은 ‘혼자가 된다는 심리적 변화와 독립에 대한 불안요인’(김미연, 2017)과 ‘혼자라는 생각과 앞으로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함과 외로움’(박상현, 2013)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립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김예성, 이경상, 2015), 연구참여자들도 청소년의 객관적인 자기인식을 통해 현실의 인정하고 자립을 위한 의지를 가지도록 촉진하는 자존감 향상을 위한 지원이 자립성공을 위한 요인이라고 인식하였다. 즉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지원주택의 사례관리자가 상담 등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한 아이가 경계선 지능이었는데, 기초생활수급 특수전형으로 〇〇대가 된 거예요. 대학에 가서 자신감이 높아지더니, 얼마 전 노인복지 레포트를 쓰고 A+를 받았다고 하고, 한 학기 성적이 나왔는데, ‘나 장학금 받을 수 있어’ 하는 거예요. 도와주니까 이런 변화가 있더라구요.” <①>

“아이들이 직장생활하기 위한 사회진입 부분이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 해서, 한 1. 2년은 상담으로 도와주어야 해요.” <②>

4) 일에 대한 지속성으로 자립을 유지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최대 이슈는 취업과 경제(강현아, 신혜령, 박은미, 2009)로,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미래를 위한 진로준비과정 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퇴소청소년이 자신의 일을 찾아 자신의 삶의 주체성을 찾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진로지도 뿐 아니라 정보 제공 및 직업훈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는데 소개해서 직장에 넣어주면 거기를 두 달 만에 그만두고...(중략) 1년만 좀 버텼으면...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직장을 꾸준히 안 다닌다는 거예요. 이것도 도와줘야 해요.” <③>

“양육그룹홈에서 자립준비를 시키면서, 아이가 자격증 다 취득하고, 취업을 한 상태에서 자립생활관으로 옮겨 갔거든요. 그래서 자립하는데 되게 좋았는데...” 〈②〉

“자격증을 따야 하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되게 많이 지원이 필요해요. 아이들은 작년에 분명 났는데, 맘에 안 들어 또 다른 것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여러 개 해보고 싶잖아요. (중략) 이 아동들에게 그런 것들도 지원이 됐으면” 〈③〉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주요 구성요소의 주제범주와 하위내용범주를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연구결과

주제범주(요소)	하위내용범주
입주 청소년 : 자립을 위한 ‘출발 준비’	독립주거에 대한 책임감 자립의지 경제적 자립 가능성
주거 공간 : ‘내가 살고 싶은 집’	퇴소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집 사생활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곳 ‘시설’이 아닌 곳 지지체계가 될 수 있는 공간
서비스 : ‘도움’이 되는 지원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자립과정 미래의 완전한 자립을 위한 금전관리 자존감을 바탕으로 자립에 성공 일에 대한 지속성으로 자립을 유지

V. 결론 및 제언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자립은 성인으로서의 발달과업이기 전에 법과 제도에 의해 요구받는 ‘타인에 의한 홀로서기’(유영림 외, 2015: 529)와 같다. 그러나 사회적·개인적 자립지원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또다시 ‘사회로 내던져진’(권지성, 정선욱, 2009: 239) 퇴소청소년들은 주거부담과 빈곤,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성인기로의 전환은 물론, 독립적 생활주체로의 전환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새로운 지원패러다임으로 이미 해외에서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집 없음(homelssness)’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지원주택에 주목하였다. 주거배제를 경험하는 취약계층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그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통합하고 그 제공주체가 일치하는 지원주택은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익숙한 개념이 아니다. 이는 주택 제공과 사회복지서비스 결합에 있어 각 영역 간의 접근 방식이 단절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비스제공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사회복지영역에서도 대상자의 주거상황을 시설 혹은 재가라는 둘 중 하나로만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남기철,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주택의 한국적 적용에 앞서 지원주택의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 퇴소청소년 자립을 위한 지원주택 구성요소에 대해 현장실무자 포커스 그룹 면접을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주택에 있어서 입주당사자인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출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퇴소청소년이 지원주택에서 생활하는 동안 ‘독립 주거에 대한 책임감,’ ‘자립의지,’ ‘경제적 자립의 가능성’을 키움으로써 자립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의 자립을 위한 여정의 시작은 일상에서의 어려움과 지지체계의 부족을 경험하면서도 현실에 적응하고, ‘희망의 끈’(유영림 외, 2015)을 놓지 않고 본인의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자립을 위한 ‘출발 준비’인 것이다. 이러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들의 자립은 비록 타의에 의해 수동적으로 자립을 시작하게 되나,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고 적응하며, 본인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해 본인의 삶을 능동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여준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문제 중심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강점 관점에서 바라보고(김희성 외, 2016), 퇴소청소년의 강점을 개발하고 자립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권지성, 정선옥, 2009; 유영림 외, 2015). 또한, 영국 포이어 모델 및 미국 Chelsea Foyers에서 입주 청소년에게 최소한 파트타임 직업을 가져야 하며, 책임감을 갖도록 프로그램 참여비를 지불하도록 하고 그 액수는 그들의 수입에 따라 결정하는 운영방식(김성경 외, 2014)과 같이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주택에서도 기존 아동·청소년복지에서는 보호아동 및 청소년에게 서비스가 모두 무상이었던 접근과 다르게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둘째, 퇴소청소년 지원주택의 주거공간은 청소년 본인이 ‘살고 싶은 ‘집’, 즉 청소년의 욕구가 반영된 공간이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퇴소청소년이 살고 싶은 ‘집’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양질의 주거수준을 갖춘 좋은 집과 같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집’이며, ‘사생활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곳’, ‘시설이 아닌 곳’, ‘지지체계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하위범주화되어 내용이 분석되었다. 이는 퇴소청소년들을 위한 주거로 단순히 청소년의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주거조건을 강조하고 있어, 이미 서비스 현장에서는 퇴소청소년의 지원주택에 대한 인식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Hannigan과 Wagner(2003)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지원주택은 최저 주거수준 이상의 안정성과 쾌적성을 담보한 공간이어야 함이 분석되었다.

셋째, 퇴소청소년 지원주택의 서비스 요소로 ‘도움’이 되는 지원이라는 주제 범주를 도출하였으며 그 하위 범주로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자립과정’이므로 일상생활기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미래의 완전한 자립을 위한 금전관리’, ‘자존감을 바탕으로 자립에 성공’, ‘일에 대한 지속성으로 자립을 유지’ 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포커스 그룹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 확인하였다. 가정에서 자라나 자연스럽게 자립하는 청소년과는 달리 타의에 의해 자립을 요구받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들에게 혼자 살아가야 하는 부담감과 외로움, 자립 이전부터 경험한 시설 출신이라는 낙인과 차별의 경험은 여전히 이들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며(권지성, 2007) 이러한 어려움은 결국 자립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현장 실무자들 역시 자립 지원주택 접근방법에 있어서 주거공간에 그치지 않고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논의하였으며, 그 주체가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즉, 김성경 외 (2014)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의 낮은 자립 성취도에 대한 대응책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더불어 자립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지적 사회관계망의 형성을 돕는 통합적 지원과 제공 주체가 통합적이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Clapham(2015)의 연구와 일치하여 일상생활 지원, 심리 정서적 지원, 재정 및 금전관리 지원, 취업 및 진로지원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지원주택 입주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로 구축되어 실천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주택에서 서비스 실천의 기본 전제는 퇴소청소년의 의지와 강점을 개발하고,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의 협력을 강조하는 사회복지 강점관점 및 역량강화 사례관리의 목적 및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확인한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주택에서의 지원서비스는 이들 청소년들이 안정된 주거를 기반으로 하여 보다 성공적으로 사회로 나아가는 ‘론칭’ 과정에서 자립경로를 개척하고 이를 성공으로 연결하는 교량의 역할을 의미한다. 따라서 퇴소청소년 지원주택의 지원서비스로서의 사례관리가 도입될 경우, 주거안정을 토대로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이루어진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사례관리와 분명한 차이점을 지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원주택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지원주택의 구성요소를 입주자(퇴소청소년), 주거공간, 지원서비스로 확인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지원주택을 도입함에 앞서 설계와 시행,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구성요소를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주택에 대해 개념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아동복지현장 실무자의 경험과 인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지원주택의 구성요소를 제시하여 적용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기존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을 위해 LH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 및 전세주택, 그리고 아동자립지원시설은 주택 제공 주체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동일해야 하는 통합적 특성을 갖추지 못했는데, 이러한 요소를 본 논문에서 보여주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향후 이러한 요소들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2014년 데이터를 분석한 논문으로 그 한계점이 있으므로, 그 이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복지 정책의 변화, 그리고 시설 퇴소청소년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의 변화 등을 반영한 데이터와 분석연구가 추후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한 것이지, 당사자인 퇴소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향후 우리나라에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하여 청소년 지원주택이 설치되길 기대하며, 추후 청소년 자립 지원주택의 운영과 평가 연구가 전문가 관점 뿐 아니라 청소년 당사자 관점에서 이루어지길 제안한다.

참고문헌

- 강현아, 신혜령, 박은미 (2009). 시설 퇴소청소년의 성인전환 단계에 따른 자립 및 사회 적응 현황. **한국아동복지학**, 30, 41-69.
- 권지성 (2007).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퇴소 후 생활에 대한 문화기술지. **아동권리연구**, 11(1), 1-29.
- 권지성, 정선옥 (2009). 아동양육시설 퇴소생의 퇴소 후 생활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3), 229-253.
- 김명성 (2013). **시설퇴소청소년의 자립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연 (2017). **아동양육시설 ‘퇴소준비 청소년’ 자립인식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성경 (2007). 청소년쉼터의 사례관리실천의 분석과 실천모델 적용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4(3), 293-317.
- 김성경, 김희성, 원지영 (2014). **보호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사업모형 연구**.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성서대학교.
- 김성재, 김후자, 이정자, 이선옥 (2000).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 서울: 현문사.
- 김수정, 김지선, 정익중 (2017). 가정외보호 퇴소청소년의 원가족 관계 경험. **한국아동복지학**, 58, 1-45. doi:10.24300/JKSC.2017.06.58.1
- 김예성, 이정상 (2015).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42, 7-32. doi:10.17854/ffyc.2015.04.42.7
- 김희성, 전구훈, 김성호, 정민아 (2016).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아동복지협회.
- 남기철 (2011).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활용의 쟁점과 모색. **월간 복지동향**, 152, 5-13.
- 남기철 (2012). 노숙인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쟁점. **비판사회정책**, 34, 5-45.
- 박상현 (2013). **아동양육시설 퇴소자의 자립에 관한 현상학 연구**. 경북외국어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보건복지부 (2018). **2018 아동사업 분야안내[1]**.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2011). **시설 퇴소아동 실태조사 및 분석**.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2016a). **2016 아동자립지원 통계 현황보고서**.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2016b).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 서종균 (2013). 지원주택 도입과 확대를 위한 검토. **도시와 빈곤**, 104, 72-97.
- 신혜령, 김성경, 안혜영 (2003). 시설퇴소아동 자립생활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아동복지학**, 16, 167-193.
- 신혜령, 박은미, 강현아, 이현주, 한규제, 김경희 (2008).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아동 자립지원센터.
- 아름다운재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2017). **2016 보호종결아동 주거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주거권 실태조사**. 서울: 아름다운재단,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 안혜영, 윤명숙, 권자영, 김용득, 강혜규 (2011). **위기가구 사례관리 업무 매뉴얼**.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유영림, 양영미, 박미현 (2015). 아동양육시설 퇴소 자립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이해: 생애사적 관점으로. **아동과 권리**, 19(3), 509-550.
- 윤명숙, 박신애 (2014). 퇴소를 앞 둔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재분리 준비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6(4), 133-155. doi:10.20970/kasw.2014.66.4.006
- 장혜림, 이정애, 강지연, 정익중 (2017). 가정외보호 퇴소청소년의 무업자 생활경험. **한국아동복지학**, 57, 9-42.
- 정선욱 (2010). 시설 퇴소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관련요인. **청소년학연구**, 17(2), 233-252.
- 정익중, 장혜림, 이정애, 강지연 (2015). **요보호아동 사회적응과정과 빈곤예방대책 연구**. 오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최경옥, 이연숙, 강혜연 (2014). 영국의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모델 사례분석. **한국 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76-176.
- Beyond Shelter (2009). *Housing First: Ending family homelessness*. Los Angeles, CA: Beyond Shelter.
- Clapham, D. (2015). *Accommodating difference: Evaluating supported housing for*

- vulnerable people*. Bristol: Policy Press. doi:10.1332/policypress/9781447306344.001.0001
- CSH (2013). *CSH dimensions of quality supportive housing*. N.Y.: CSH.
- Dworsky, A. (2010). Supporting homeless youth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Housing-based independent living programs. *The Prevention Researcher*, 17(2), 17-21. doi:10.1037/e540552010-003
- Dworsky, A., & Courtney, M. E. (2009). Homelessness and the transition from foster care to adulthood. *Child Welfare*, 88(4), 23-56.
- Ford, J., Rugg, J., & Burrow, R. (2002). Conceptualising the contemporary role of housing in the transition to adult life in England. *Urban Studies*, 39, 2455-2467. doi:10.1080/0042098022000027059
- Hannigan, T., & Wagner, S. (2003). Developing the support in supportive housing. *A guide to providing services in housing*. New York: Corporation for supportive housing.
- Jezek, K. K. (1997). The meaning of launching a child. *Journal of Family Nursing*, 3(1), 70-87.
- Maluccio, A., Krieger, R., & Pine, B. (1990). Adolescents and their preparation for life after foster family care: An overview. In A. Maluccio, R. Krieger, & B. Pine (Eds.), *Preparing adolescents for life after foster care* (pp. 5-17). Washington DC: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 Mayock, P., Corr, M. L., & O'Sullivan, E. (2008). *Young people's homeless pathways*. Dublin: The Homeless Agency.
- Steen, A., & MacKenzie, D. (2017). The substantiality of the Youth Foyer Model. *Social Policy and Society*, 16(3), 391-404.
- Van Kaam, A. (1969). *Existential foundation of psychology*. NY: Doubleday.

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n supportive housing for youth discharged from child residential care homes: Service practitioners' perceptions of supportive housing components

Kim, Sunkyung* · Jung, Min Ah** · Kim, Heesung*** · Lee, Kyounghe****

This study investigates supportive housing for youth who have been discharged from Korea's child residential care system. For this purpose, focus group interviews with service practitioners for youth group homes and residential care institutions were conducted and qualitatively analyzed.

The results identified three main components and the related contents of supportive housing for the independence of youth discharged from child residential care. "Preparation for independent living" was conceptualized as a youth-related component. "The home in which I want to live" was conceptualized as a housing service component. "Support and assistance" was conceptualized as social welfare service component. The research findings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new service paradigm that supports youth who have been discharged from the child residential system to make the transition to independent living.

Key Words: youth discharged from the child residential care, independent living, supportive housing

투고일: 2018. 11. 26, 심사일: 2019. 2. 27, 심사완료일: 2019. 3. 18

* Korean Bible University

**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 Myongji College

**** Yonsei University